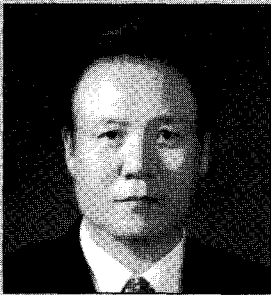


지속적인 신제품 · 신기술 개발로 내실기업문화 창조 제30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석용찬
(주)화남인터스트리 대표이사

지난 3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0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식품포장용기 및 산업용 제품 업체인 (주)화남인터스트리 석용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과분한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기관 및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상한 만큼 기업 발전에 더욱 헌신하라는 격려로 알고 회사의 발전은 물론 관련 업계 및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석용찬 사장은 지난 1987년 경기도 남양주에 “정직한 기업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 경영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창조하여 보람과 결실을 공유하는 21세기 초우량 기업을 지향한다”는 경영이념으로 화남화학(주)를 설립하게 된다.

현재 화남인터스트리는 플라스틱 Sheet압출, 성형, 인쇄 등 일괄 자동화 공정을 통한 식품포장용기 및 산업용 제품을 관련 업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88서울올림픽 당시 급식 용기 공급업체로 지정돼 급식산업에 참여, 위생적이고 고급화된 제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식품산업 발전에 한몫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용찬 사장은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인력감원 없이 물류시스템을 아웃소싱하고 후공정을 분사(分社)함으로써 상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원가절감과 함께 수익구조를 크게 개선시켰다. 또한 노사 협력에 적극적으로 투자, 기숙사를 고급화하고 학비를 제

공하는 등 복지후생에 노력한 결과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했다.

대외적으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환경분과위원장),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부회장) 등 업계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활용 체계구축을 마련하는 등 업계 현안 및 중소기업 지위향상을 노력해 온 석용찬 사장은 “파주시 기업인협의회(회장)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사장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R&D 및 자동화시설 투자로 제품개발 및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무한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도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자사의 독특한 신제품, 신기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경영방침으로 화남인더스트리는 지난 2002년 3월에는 ISO 9001 인증획득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모범납세 직장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1996년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대지 6000평, 건물 30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첨단 자동화 시설을 보완, 농업용 포트동 산업용 신규제품을 개발을 이끌었으며 최근에도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용찬 사장은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등 환경 관련 신규 사업 진출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각종 지침에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규제로 플라스틱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석 사장은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폐기물정책으로 말미암아 재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규제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한다.

“최근 도입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처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플라스틱 규제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 또는 철폐하여 관련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사용규제 제도는 정보와 산업계간 불신만 조장시키므로 현실과 시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켜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을 자원화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보다는 내실경영으로 전 사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석용찬 사장. 그는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기술 부문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고객 요구와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이래, 작업환경 뿐 아니라 사원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주)화남인더스트리 석용찬 대표이사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

박초혜 기자